



“尹 정부 내 CPTPP 가입 무산”은 사실이 아님

〈보도 주요내용〉

8.23.(금) 서울경제는 「‘정치 프레임’ 갇힌 CPTPP…尹 정부 내 가입 무산」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CPTPP 가입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 하였습니다.

〈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〉

현 정부 내 CPTPP(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가입이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 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·전략적 가치와 함께 농수산업 등 일부 산업에 예상되는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TPP 가입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,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 주력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자유무역협정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박정미 (044-203-5740)
	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이 연 (044-203-5744)